

지속가능한 섬 마을 조성을 위한 ‘한국섬진흥원표’ 특성화 사업

행정안전부의 섬 지역 특성화 사업은 지속가능한 섬 마을을 조성하기 위해 섬 주민이 조직체를 구성하고,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소득사업 및 마을활성화 활동을 추진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 기존에는 사업을 추진하는 시군구에서 관리했으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.

보다 나은 섬 마을의 특성화 사업을 위해 2023년부터 한국섬진흥원이 본 사업을 총괄 관리하게 되었습니다.



낙후된 마을을 지원하는 섬 지역 특성화 사업

섬 지역 특성화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지리적 여건 및 각종 규제로 인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도서지역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.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활용, ‘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’ 내역사업 일환으로 시작하여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섬 지역 60개 마을을 선정·지원했습니다.

총괄관리 조직 및 현장 관리자의 필요성 대두

시군구에서 사업을 추진·관리해왔으나, 지자체 담당자의 업무가 과중한데다 잦은 인력 교체 등으로 일관성 있는 관리가 어렵고, 마을사업에 대한 전문성 또한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. 마을계획 수립과정에서 1~2차례 주민간담회, 선진지 견학 등 수동적인 절차만 진행될 뿐,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계획을 수립하기에는 한계가 보였습니다. 이에 따라 현장에서 주민 역량 강화 및 실행력 있는 추진체계 구축을 도울 총괄관리 조직과 현장 관리자(PM)의 필요성이 대두됐습니다.

섬 발전사업 전문기관인 한국섬진흥원의 사업 관리

사업추진의 발전적인 방안이 요구됨에 따라, 2022년부터 지자체에서 직접 관리·운영하던 방식에서 한국섬진흥원에서 총괄 관리(위탁)하도록 하여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사업 관리체제로 전환되었습니다. 2022년 11월에는 전국



의 지자체 섬 업무 담당 공무원 정책워크숍을 통해 섬 특성화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공감대와 내용을 주고 받는 귀중한 시간도 가졌습니다.

섬 특성을 반영한 주민 참여 사업으로 만들어 가다

한국섬진흥원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뿐 아니라 역량을 제고함으로써, 실질적인 ‘주민 참여 사업’이 될 수 있도록 현장 관리단(PM)을 운영합니다. 전체 사업은 한국섬진흥원에서 주관하여 PM을 선정·관리함으로써 각각의 섬 특성을 반영한 사업을 운영하며 전문 컨설팅의 역할까지 더합니다.

지속가능한 섬 마을을 꿈꾸다

섬 주민이 조직체를 구성하고,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한 마을발전계획을 직접 수립하며 소득사업 및 마을활성화 활동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. 지원대상은 「섬 발전 촉진법」 제4조에 따라 지정된 특수상황지역 내 188개 개발대상 섬으로, 마을 단위로 신청하여 서류와 현장 평가를 거쳐 선정됩니다.